

**Title: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study 6 Sermon Notes****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John and Jesus**

Scripture: Luke 1:39-45, Matthew 3:13-15

Date preached: December 19th 2021

**Scripture: Luke 1:39-45, Matthew 3:13-15**

**39** Now Mary arose in those days and went into the hill country with haste, to a city of Judah, **40** and entered the house of Zacharias and greeted Elizabeth. **41** And it happened, when Elizabeth heard the greeting of Mary, that the babe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42** Then she spoke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43** But why *is* this *grant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44** For indeed, as soon as the voice of your greeting sounded in my ears, the babe leaped in my womb for joy. **45** Blessed *is* she who believed, for there will be a fulfillment of those things which were told her from the Lord.”

**13** Then Jesus came from Galilee to John at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him. **14** And John *tried to* prevent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are You coming to me?” **15** But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Permit *it to be so* now, for thus it is fitting for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he allowed Him.

**39**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40**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42**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44**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45**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13**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 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15**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Review**

Last time we looked in some detail at John's ministry. We spoke about what his ministry looked like and also what he taught. Let me begin by reviewing some of the key points I made last time.

Following God's call to begin his ministry John came down out from the Judean wilderness to preach and baptise. We do not know where exactly he conducted his ministry. Matthew says it was in the **wilderness of Judea** (Matt 3:1) Mark tells us it was in the **desert wilderness** (Mark 1:4), Luke says it was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Luke 3:3)** and John says that, **These things were done in Bethabara beyond the Jordan**. I think it probable that he based himself at the northern end of the dead sea. This would have placed him within a comfortable travelling distance from Jerusalem and Jericho and the other towns of Judea. Wherever he preached he was a great success.

Large crowds came to hear what he had to say and were profoundly convicted by his words. As I said last week there may have been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John clearly had a message that resonated with people. He may well have been a powerful and captivating preacher. Perhaps there was a certain novelty factor to him. Here after all was a man claiming to be speaking from God after 400 years of silence!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John wa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So maybe many went to see him without good sincere intentions but were touched and transformed by his message.

His message or his teaching can be summarised under three headings. Firstly he recognised that he was sent as a herald or messenger of one much greater who was to follow. His job then was to point people towards the coming Messiah and His Kingdom. This was why he began his message with the news that the Kingdom was at hand.

Once he had the people's attention he went on to tell them what was required from them. Because the Kingdom is at hand, and potentially God's judgement is near repentance is needed. This was the second component of his teaching. It wa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break free from the dangerous religious attitudes that dominated at that time. These attitudes were reflected in two prevailing world-views. Firstly that as Jews, God's chosen people they were already saved and had no need to repent. Secondly that God was really only concerned with the external aspects of a person's life. As long as you followed the rules or precepts of faith then it didn't matter about the state of your heart or mind. John rightly called the people out for this hypocrisy. In order to make themselves right before God they needed to repent. It was necessary for them to confess to God that they were wretched sinners and then turn from their sins and seek after God. They were to show that they were sincere or genuine in their repentance by submitting to John's baptism. This symbolic act of cleansing served as a public declaration to all the world that they were repentant and wanted to change.

The third and final component of John's teaching concerned how one was to live after repenting and being baptised. Repenting and being baptised was not the end, it was merely the beginning. You were to go on from this moment and live a life that demonstrated that you were now living for God and seeking to please him in all you did. The same thing applies today. When we repent of our sins, put our faith in Christ and are saved we are re-born. We do not continue on in our old life of sinning and selfish living. Although we fail many times we try to live a life that shows we are in Christ and are being transformed slowly into His image.

Today we will consider John's interactions with and responses towards Jesu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의 모습과 그가 가르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요한은 전파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 유대 광야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어디에서 그의 사역을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는 유대 광야에 있었다고 말하고(마 3:1) 마가는 광야에 있었다고 말하고(막 1:4), 누가는 요단 주변 지역이라고 말하고(눅 3:3)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이는 요단 저편 베다바라에서 행한 일이라 사해 북단에 거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유대의 다른 성읍들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말했듯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매혹적인 설교자

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어떤 참신한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결국 400 년 동안의 침묵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 없이 그를 보러 갔지만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나 가르침은 세 가지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뒤를 이을 훨씬 더 큰 분의 전령이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의 임무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야와 그의 왕국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왕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으로 메시지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왕국이 가까웠고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위험한 종교적 태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지배적인 세계관에 반영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의 삶의 외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믿음의 규례나 계율을 따른다면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위선을 위해 사람들을 부른 것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련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에 복종함으로써 회개에 있어서 진실하거나 진실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정화 행위는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기적인 삶의 옛 삶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천히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과 상호작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고려할 것입니다.

### **The first meeting**

**39 Now Mary arose in those days and went into the hill country with haste, to a city of Judah, 40 and entered the house of Zacharias and greeted Elizabeth. 41 And it happened, when Elizabeth heard the greeting of Mary, that the babe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Perhaps you think that I am stretching things a little to call this the first meeting between John and Jesus. After all both John and Jesus were babies in their respective mother's wombs at the time. However I think John's response even as a babe in the womb is interesting and worth highlighting. As the bible scholar Thomas Constable puts it, *John began his ministry of exalting Jesus in his mother's womb.*

Let's set the scene for this first meeting. Elizabeth is six months pregnant with John when her relative Mary comes to visit. We are not sure exactly what relationship they had. You have probably heard them described as being cousins. The Greek word used is *suggenēs* (soong-ghen-ace) which simply refers to a blood relative or kinsman. Mary herself is pregnant. She of course is carrying the Messiah. As Mary enters the house she calls out a greeting to Elizabeth. It is at the sound of Mary's voice that the infant John leaps for joy in his mother's womb. You see babies are not blobs of flesh

growing in a woman's womb. Babies are unique individuals with distinct personalities carefully formed and placed there by God's loving hand. This is why those who take the life of a child in the womb are guilty of murder. John as we have seen in previous sermons was not just an ordinary baby.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rom his conception so for him to leap with joy at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Messiah is not surprising.

Did John and Jesus ever meet again as children or young men? It's an interesting question that is impossible for us to definitively answer. It's possible they met at family gatherings, but equally possible that life and circumstances kept them apart. They lived about 80 miles apart which in those days was considered a long journey. We jump forward then approximately thirty years for their second, far more significant meeting.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라고 부르기 위해 제가 조금 과장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요한과 예수는 모두 그 당시에 각자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일 때에도 존의 반응이 흥미롭고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학자 토머스 콘스터블이 말했듯이 요한은 모태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녀의 친척 마리아가 방문할 때 요한을 임신 6 개월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들이 사촌이라고 묘사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용된 헬라어 *suggenēs*(soong-ghen-ace)는 단순히 혈연 또는 혈연을 나타냅니다. 마리아 자신이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메시아를 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들어서면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기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는 것은 마리아의 음성 때문입니다. 아기는 여성의 자궁에서 자라는 살이 아닙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배치된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독특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보았듯이 요한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를 만나 기뻐 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과 예수는 어린 시절에 다시 만났습니까? 아니면 청년이었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들이 가족 모임에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삶과 환경이 그들을 갈라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약 80 마일 떨어져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긴 여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회의를 위해 약 30 년 앞으로 나아갑니다.

### **The second meeting**

As we have spoken about before John was called to his public ministry in order to announce and prepare the people for the arrival of the messiah. To this end John had come out from the Judean wilderness and was preaching and teaching at some location along the Jordan river. It is whilst he was baptising here one day that he was approached by the Lord Jesus who had journeyed down from Nazareth in Galilee.

### **13 Then Jesus came from Galilee to John at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him.**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significance of this event in history. John's baptism of Jesus signalled the start of Jesus' public ministry. He had lived in relative obscurity for 30 years in his hometown of Nazareth. Now it was time for Him to step onto the world stage. In just three short years His earthly ministry would conclude with Hi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in Jerusalem.

So let us then try to picture the scene. John standing on the banks of the Jordan river when Jesus approaches and asks him to baptise him. Now each gospel writer handles the baptism in a slightly different way. We are looking mostly at Matthew's account here. He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tell

us that John was reluctant to baptise Jesus.

**14 And John *tried to prevent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are You coming to me?”**

In saying this we see both John's humility and spiritual insight. John had become a very well known and famous preacher. He commanded widespread popularity and respect. This kind of adulation can often puff a man up and make him prideful and arrogant. This was not the case with John. When Jesus approached and asked to be baptized John instantly recognised his superiority. Guid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knew that the man who stood before him was sinless perfection. He did not therefore need John's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By contrast the humble John knew his own failings as a sinful man and rightly recognised that it was he, not Christ who really needed baptism. Let us look at how Jesus responds.

**15 But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Permit *it to be so now*, for thus it is fitting for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he allowed Him.**

Jesus understood why His request for baptism seemed strange to John. Jesus also understood John's reluctance and knew that it came from deep spiritual commitment and sincerity. However He told him in effect that at this particular time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The reason that Jesus asked to be baptised has puzzled many people, so let us unpack the reasons why it was necessary. Firstly we need to explain what Matthew meant by **righteousness** (*dikaionē*). Some misunderstanding comes because we tend to adopt Paul's usage of the word. We need to note that Matthew's use of this word differs from the Apostle Paul's. Paul used the word to describe our right standing before God. When we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and put our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God grants us **righteousness**. We can stand before Him without the burden of our sins. This is because Christ's righteousness is imputed or given to us. Matthew however uses the word to refer to our conformity to God's will. Matthew would say a righteous person is someone who lives in harmony with God's will. Knowing this helps understand why it was right that Jesus be baptised by John. He wanted to live in absolute obedience to God's will. I think we can identify four main reasons for Jesus to be baptised.

요한이 메시야의 도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준비시키기 위해 그의 공적 사역에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이를 위해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나와 요단 강변의 어느 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세례를 주던 중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오신 주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3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사 우리는 역사상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고향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세계 무대에 오르실 때였습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분의 지상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로 끝날 것입니다. 그럼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가에 서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복음서 저자는 침례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Matthew의 설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주기를 꺼렸다고 우리에게 말한 유일한 복음서 작가입니다. 14 요한이 막으려 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요한의 겸손과 영적 통찰력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유명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인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칭찬은 종종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John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즉시 자신의 우월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온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겸손한 요한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었고 세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 다음 그는 그를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청이 요한에게 왜 이상하게 여겼는지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꺼림칙함을 이해하셨고 그것이 깊은 영적 헌신과 성실함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특정한 시간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사실상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요청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가 의(dikaio sunē)를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약간의 오해는 우리가 그 단어의 바울의 용법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사도 바울의 것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짐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거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왜 옳은 일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네 가지 주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His baptism indicated that He consecrated by God and had God's official blessing and approval. All God's righteous requirements for the Messiah were met in Christ.
  - 2) Jesus baptism serves as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arrival of the Messiah and the start of His public ministry.
  - 3) By His baptism Jesus identifies Himself with humanity's sin and failure. He came as our substitute therefore He put Himself in our place as sinners.
  - 4) It set an example for His followers to emulate
- 1) 그의 세례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성별되었고 하나님의 공식적 축복과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 사항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습니다.
  - 2)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의 도래와 공생애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 3)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자신을 인류의 죄와 실패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대신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 4)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What was John's response to Jesus words? John consented and allowed Jesus to be baptised. Whilst the Lord Jesus is being baptised He prays and the following occurs,

**The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in bodily form like a dove upon Him,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which said,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 am well pleased." (Luke 3:21-22)**

This act was God the Father publicly demonstrating that Jesus' baptism was not just like anyone else's. Other people had been baptised as a public display of repentance. Jesus had nothing to repent

of, He was fully righteous. Jesus baptism then was His public identification with sinners. It was an act motivated by sacrificial love and as such was accepted and endorsed by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It also served to authenticate who Jesus was and that He had the Father's full support. This act also served as defining proof to John that this was indeed the Messiah, the One Whom John had come to herald to the people. We know this because on the following day John said the following.

**29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30 This is He of whom I said, 'After me comes a Man who is preferred before me, for He was before me.' 31 I did not know Him; but that He should be revealed to Israel, therefore I came baptizing with water." (John 1:29-31)**

This is arguably John's most famous statement;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It succinctly emphasises John's God given mission. He was called by God to herald the coming Messiah. His purpose was to point others towards the one sent to save. This is exactly what he did. Prior to meeting and baptising Jesus John had preached of the need to repent and turn from sin. Following the baptism of Jesus his focus became to point people to the Lord Jesus Christ. This is the model we all should follow when it comes to evangelism. The first step is to point out to people that they are sinners and need to repent of that sin. The second thing is then to point them to the only person who can truly save them from that sin and its consequences; The Lord Jesus Christ.

For the remainder of John's short period of public ministry this became his mission. Although his own fame diminished, and some of his disciples left to follow Christ John was never perturbed. He accepted that this was God's will. God's kingdom must increase and his own influence and power must decrease. Next time in our final sermon in this series we will look at the death of John and his legacy.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은 동의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 기도하시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당신 안에서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3:21-22) 이 행위는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사람의 세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의 공개적인 표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었고 완전히 의로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과의 공개적인 동일시였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행위였으며, 그 자체로 아버지와 성령께서 받아들이고 승인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또한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리려 온 메시야가 참으로 메시야라는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30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내 뒤에 오나니 이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였노라 31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노라." (요한복음 1:29-31) 이것은 틀림없이 John의 가장 유명한 진술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것은 요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간결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오실 메시야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침례 이후 그의 초점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와 그 결과로부터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짧은 공적 사역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줄어들고 그리스도 요한을 따르기 위해 떠난 그의 제자 중 일부는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의 영향력과 능력은 쇠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는 요한의 죽음과 그의 유산을 살펴볼 것입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one comment to make today.

### **The humility of John**

There are many lessons we can learn from a study of John the baptist. The one I want to briefly touch on here is John's humility. Of the many positive things we could say about John perhaps the most obvious is his lack of pride. John as we have seen was never motivated by the material things of life. He was not interested in fame or money, nice houses or luxurious possessions. He was not interested in gaining followers, influence or impressing people. All that motivated him was serving God faithfully. He also never stumbled when it came to pride or ego. How easy it would have been for him to think he was something special when all of Judea was talking about him and coming to hear him preach. He resisted this temptation. When Christ came to him he willingly acknowledged his proper place. He didn't say, "Yes I should baptise you because God has given me great power." Instead, he confessed that Christ should baptise him. Even when people left him to follow Jesus John remained humble. It was only right and proper that people follow Jesus. His service belonged to God and however God wanted to use that service was fine with him.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we are prideful or allow pride to impact our lives. Pride is believing something that is not true about ourselves or others. Often it is that we are much better or more righteous than others. Or that we are something special and important. How easy it is to let this kind of selfish thinking mar our lives and our witness. John's life demonstrates for us true humility. His focus was never himself or things that were to his advantage. It was always the Lord Jesus Christ. Let us learn from John's example of humility and single-minded service to Christ.

오늘 할 의견은 딱 하나입니다.

### **요한의 겸손**

세례 요한의 연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요한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John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것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명백한 것은 그의 교만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요한은 결코 물질적인 삶의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돈, 좋은 집이나 사치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추종자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동기를 부여한 모든 것은 충실하게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존심이나 자존심에 관해서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올 때 그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는 이 유혹을 물리쳤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

는 기꺼이 자신의 합당한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권능을 주셨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를 떠났을 때에도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옳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에게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교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거나 의롭습니다. 또는 우리가 특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과 증거를 손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의 초점은 결코 자신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겸손과 그리스도에 대한 일편단심 봉사에 대한 요한의 모범에서 배우도록 합시다.